



내 조각은 '차이와'

교포 조각가 이원형씨 귀국 인터뷰/

최일옥 (소설가)

재 캐나다 교포 조각가 이원형씨를 만났다.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목조 심포지엄과 특강을 마치고 중국 다롄으로 향하는 중 짬을 낸 귀국이였다.

그는 얼마 전 미국 버몬트에 있는 존슨 주립대학과 텍사스 베니 미술재단에 2m 크기의 작품 <메디테이터스(Meditators)>를 각각 설치했다. 그의 작품은 미국뿐 아니라 런던에 있는 조각공원(The Pride of the Valley) 등 해외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다. 그는 현재 국제조각센터 상임 멤버, 미국 버몬트 아트센터 이사, 토론토 예술학교 이사이며, 세계 각 도시의 미술관과 대학에서 들뢰즈 미학을 강의하는 미학자이기도 하다. 세계적 조각 전문지 <스칼프처(Sculpture)>에 그의 작품이 소개되며, 뉴욕의 저명한 조각 평론가 로버트 모건 교수의 평론이 특집으로 실린다. 그는 최선을 다할 뿐 그 끝은 자신의 몫이 아니므로 언제나 비워둔다고 말한다.

캐나다에서 조각가로 자리 잡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나?

해방되던 1945년 2남 3녀 중 막내로 서울에서 태어났다. 외국어대학 영어과를 졸업하고 창작 욕구를 억제할 수 없어 미국 유학의 길을 택했다. 미국 웨버다인 미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,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회계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토론토 공인회계법인을 개업했다.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.

조각을 선택한 이유는?

철학적 사유와 도전을 좋아한다. 회화에 내철학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하였으나, 마티스나 피카소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색감에 대한 천재성을 보았다. 조각은 나에게 친숙한 미디어였고, 그림을 그리면서도 흙으로 무엇인가를 섬없이 만들었다. 대학원 재학 중 천재적 조각가들의 작품을 보며 그들보다 나은 조각 작품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. 조각으로 내 작품 세계를 마무리

해보고 싶은 승부욕과 자신감으로 조각에 전념하고 있다. 그 길 또한 어렵지만, 끝없는 도전 의식은 나의 창작 의욕을 억제하지 못한다.

여체가 주는 매력은 무엇인가?

아름답기 때문이다. 나는 아름다움을 사랑한다.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나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고 본다. 그 대상을 만나는 순간순간 그들의 다름을 만나게 되며 그 다름을 통해 호흡을 느낀다. 따라서 모든 것은 살아 있다. 그 다름의 가장 아름답고 다양한 신비가 인체이며 특히 여체이다. 여성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.

작품이 무척 예로틱한데?

나는 생명의 재생성을 믿는다. 새로운 삶은 죽음과 삶의 만남이다. 죽음도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. 즉 죽음이 삶이며, 삶이 죽음이다. 이 모든 것은 재생의 길, 곧 순환이다. 내 작품은 섹슈얼하다기보다 육감적이라고 생각한다. 생명의 근원인 여성에게서 강렬한 생명의 의미를 본다. 성은 인간의 본성이며 창조이다. 한국인의 정서가 작품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는가?